

일본 “2025년 문제” 와 예방 식품 분석

- 고령화를 30% 초과 시대, “간병 예방 식품” 분야 성장 기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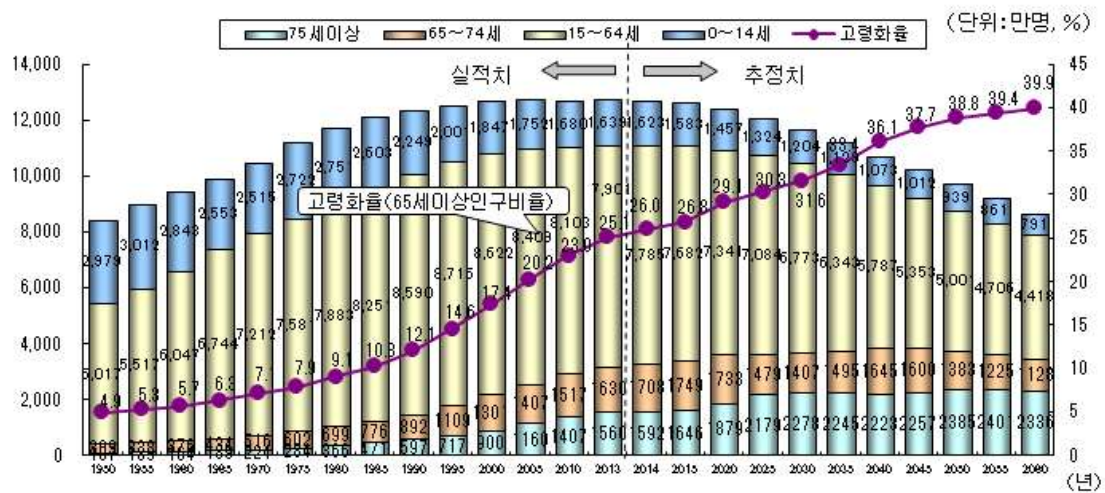
오사카지사 자체기획단신 20호(2016. 9.26)

“2025년 문제” 정의

- “2025년 문제”는 일본 인구 비중이 큰 1947~49년생의 베이비 붐 세대가 2025년경까지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이르는 것으로, 개호·의료비 등의 사회 보장비의 급증이 우려되는 문제임.

1947~49년생	2015년	전기 고령자 (65~74세)	고령화율 26% 초과
	2025년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고령화율 3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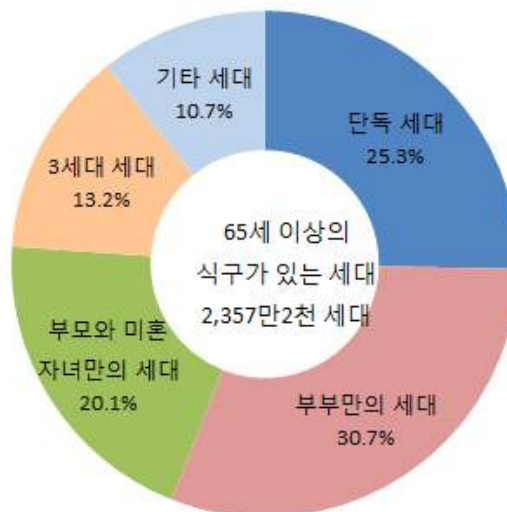
< 일본의 고령화와 미래예측 >



노인 단독 세대의 증가

- 65세 이상의 식구가 있는 세대는 2,357만 2,000세대(전체 세대의 46.7%)임.
세대 구조를 살펴보면 "부부만의 세대"가 724만 2,000가구(65세 이상의 식구가 있는 세대의 3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독 세대"가 595만 9,000세대(이 25.3%), "부모와 미혼 자녀만의 세대"가 474만 3,000세대(이 20.1%)임.
또한 "부모와 미혼 자녀만의 세대"는 "부부와 미혼 자녀만의 세대" 및 "모자가장 (또는, 부자가정)이며 미혼 자녀만의 세대"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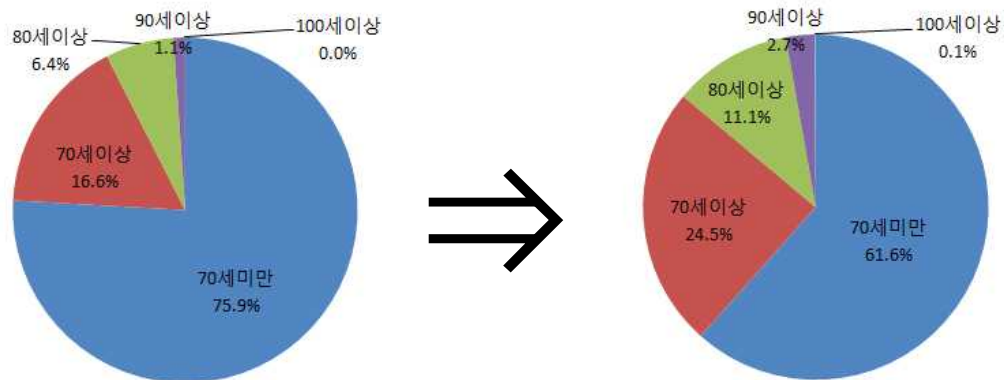
< 65세이상의 식구가 있는 세대의 세대구조 (2014년)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총인구 중 고령자 구분(70세 이상, 80세 이상, 90세 이상, 100세 이상)인구는 2010년 70세 이상 16.6%, 80세 이상 6.4%, 90세 이상 1.1%, 100세 이상 0.0%였으나 2025년에는 각각 24.5%, 11.1%, 2.7%, 0.1%로 전망되고 있음.

< 고령자 구분비율 (2010년 및 2025년) >



출처 : 인구문제연구소

선장 분야로 주목 받는 “예방 식품(간병 예방식)”

- 간호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되고 있으나 삼킴과 저작에는 문제가 없고 식사를 섭취하는데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나 걸쭉함 조절 식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령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또 식이·연하에 문제는 없으나, 먹는 양이 줄어 체중이 줄어든 고령자는 대부분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저 영양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음.

건강한 노인에게도 노화에 의한 여러 증상,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나 운동기증후군(근력 저하, 지구력 감소 반응 시간 연장, 운동 속도의 저하, 심부 감각 저하, 균형 능력 저하 등), 살코페니아(골격 근량 및 골격 근력의 저하) 등도 보임.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한 식품, 즉 **건강한 몸을 유지,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 보급이 기대되는 식품, 간호의 전 단계에 머물기 위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 식품이 “예방 식품(간병 예방식)”임**. 이른바 건강식품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정제 및 캡슐 모양의 것을 제외하고 있음.

“예방 식품”에는 끼니(주식, 주채, 부채)로 섭취하는 일반 식품과 일반 식품 아닌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이 있고 이것이 “영양보충식품”임.

“영양보충식품”에는 유동식 등의 종합 영양 식품(세대 영양소 :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을 충족)과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칼슘, 철분, 아연 등)를 경구로 섭취하는 식품이 있음.

PEM(저영양)대책용 고칼로리 제품, 살코페니아과 운동기증후군을 의식한 단백질 강화 식품, 필수 아미노산이나 분기 사슬 아미노산(BCAA:류신, 발린, 이소류신을 강화한 식품, 미네랄류(칼슘, 아연, 구리, 마그네슘, 철)와 비타민류(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엽산)를 강화한 영양기능식품, 육창 대책으로 아르기닌 콜라겐을 강화한 식품 등이 있음.

이런 “예방 식품”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향후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음.

< 젤리 타입의 “예방 식품” 제품 >

제조사	제품명	제품 개요	제품 사진
아지노모토	아미노케어젤리	·100kcal/100g. ·아미노산(BCAA)과 아르기닌을 1,000mg함유. ·BCAA의 쓴맛을 코팅한 사과 풍미.	
아지노모토	아미노케어 젤리류신40	·30kcal/100g. ·필수 아미노산(AminoL40)을 3,000g, 그 중 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류신을 1,200mg함유. ·상쾌한 사과맛.	-
가고메	녹아 야채와 과일 젤리 음료	·식물 섬유 5.0g과 비타민 C를 30g이상 함유. ·연하 곤란자의 채소 섭취에 천연 색소로 구강 잔사 확인이 가능. ·사과맛, 포도맛, 복숭아맛.	
구리니코	리허타임젤리	·‘15. 6월 발매. 1개(120g)에서 100kcal의 에너지 보급 가능. ·단백질 10g중 BCAA2500mg(류신 1400mg), 비타민 D800IU(20μg)함유. ·수분이 95g, 약간의 수분 보급에도 사용 가능.	
구리니코	엔조이콜라겐 젤리	·‘07. 9월 출시. 개별 영양 관리에 적합한 작은 컵 젤리. ·1개당 80kcal로 3.5g의 단백질을 포함, 철, 아연 등의 영양기능식품. ·미네랄은 1개당 철 5.0mg, 아연 5.0mg 포함. ·향을 요구르트맛, 망고맛, 초코맛, 카라멜맛, 팔맛, 사과맛, 커피맛 등 8종류.	

제조사	제품명	제품 개요	제품 사진
구리니코	포치+마시고 젤리	· '12. 7월 발매. 75kcal/125ml. 스파우트부로 손의 힘이 약한 쪽에서도 쉽게 밀어낼 수 있음. · 크래쉬 타입의 젤리 음료. · 포도&블루베리 애플&개럿의 2종류.	
삼화과학 연구소	단백질 맥스 젤리	· 고령자의 PEM개선을 위한 고단백 젤리, 1컵 중 단백질 6g, 기타 미량 원소(아연, 셀렌 등)를 배합. 1컵 속의 아연, 구리, 셀렌은 하루 소요량의 1/3, 철은 1/2 포함. · 뛰어난 텍스처(경도, 응집성, 부착성 등 섭취시의 감각)를 갖고 있어 씹는 힘이나 삼킬 힘이 약한 사람용으로 적합.	

시사점

- 예방 식품으로서 한국산 홍삼차 등 건강식품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한국산 신상품 개발 노력이 요구됨.

[문의 : 오사카지사 이무라마유 / imura@atcenter.or.jp]